



한라일보와 제민일보·JIBS 공동 주관으로 1일 JI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를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사진 왼쪽) 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함께 인사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 계류 책임 공방

어제 4·15총선 제주시를 후보 초청 토론회 오영훈 “야당 동의없이 국회에 계류” 책임론 부상일 “발의 시기 너무 늦어” 의지부족 비판

선택 2020 제주의 미래
한라일보 제민일보 JIBS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를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4·3특별법 개정 국회 처리 지연과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관련기사 2면
한라일보와 제민일보·JIBS 공동 주관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둘째날인 1일 JIBS 스튜디오에서 제주시를 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참석해 100분 동안 격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

보는 수년간 국회에서 계류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날선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오영훈 후보는 2017년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야당 책임론을 꺼냈다.

부상일 후보는 오영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한 뒤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두고 제주4·3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발의시기가 늦은 것 아니냐고 주장,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하

며 공세를 이어갔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로 설전을 벌였다.

부상일 후보는 제2공항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제2공항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오영훈 후보는 제2공항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주민동의 전제하에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며 도민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부상일 후보는 오영훈 후보가 2003년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이 1995년에 발표된 논문을 표절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사실 여부를 추궁했다.

오영훈 후보는 시간이 지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표절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면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대응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수성’ vs ‘탈환’ ... 여야 진검승부

4·15총선 오늘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돌입
코로나19 여파 유세차 이용·대면접촉 등 ‘고심’
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 등 통한 소통에 주력



공식선거운동기간에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상황속에서 명함 전달을 위해 대면접촉을 하거나 유세차를 이용해 사람을 모으거나 했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2일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이다. 도내 3개 선거구 총선 출마 후보는 15명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고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 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와 오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공고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중 선입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도 가능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유세차 연설과 대면접촉을 통한 명함나눠주기, 울릉홍보 등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운동에 제약이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후보들은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닌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선거로 인식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집중하겠다”며 정책으로 민심을 파고들 예정이다. 후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유권자 및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선거운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과 후보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경제살리기 및 도민통합 등 차별화된 공약을 집중 부각시키는 정책과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다.

한 미래통합당 캠프 관계자는 “운동과 음향장비 등을 사용하는 선거 유세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캠프간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TV토론회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는 선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선거전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코로나19 여파 ‘제주포럼’ 11월로 연기

당초 5월 28~30일 예정서
세계적 확산세 고려 조정

당초 5월 열릴 예정이었던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11월로 연기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포럼조직위원회는 ‘아시아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주제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주포럼을 연기에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기 결정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으로 인한 국내 확산 방지와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1년 시작된 제주평화포럼은 2011년 제주포럼으로 명칭 변경 후 연례적으로 개최돼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처음 일정이 조정됐다.

도와 조직위는 포럼 일정 조정에 따라 장소와 세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재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일정 조정에 따른 주요 인사

들의 참석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빠른 시일내 참석 여부를 재협의할 계획이다.

제주포럼에는 1996년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했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 대인지퇴금지조약을 성사시킨 조디 윌리엄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등 거목급 인사들이 참석을 통보해오는 등 성공적인 포럼개최에 대한 기대가 컸다. 앞서 도는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인사 중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참가를 공식 취소했음을 전한 바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자각거리 무단이탈 강경 대응... 4면 / 4·3 72주년 특집 <중>과제... 5면

코로나19 극복! 제주농협이 함께 합니다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함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 온 대한민국 그 놀라운 힘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함께하는 의료진, 공무원, 국민들이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농협도 함께하겠습니다

NH 농협

제주시농협	조합장 고봉주	조천농협	조합장 김진문	함덕농협	조합장 현승중	한림농협	조합장 차성준
한경농협	조합장 김군진	고산농협	조합장 고영찬	김녕농협	조합장 오충규	구좌농협	조합장 윤민
애월농협	조합장 김병수	하귀농협	조합장 강병진	제주축협	조합장 강승호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고권진

제주지역농축협운영협의회 협의회장 김군진 **NH농협 제주지역본부** 지부장 고석찬